



환경부장관 상

지정·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완벽처리... 환경 종합처리 전문기업 도약



이재호 대표이사



서광환경산업(주)

국토일보가 주최하는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시상식에 서 서광환경산업(주)(대표이사 이재

도중의 2차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의 생활폐기물과 공장 등의 사업장폐기물, 건설공사와

정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

다. 현재 충남, 충북, 대전, 경기 일원의 지자체, 자동차정비업소 및 부분 정비조합과 일반 산업체 등 1,300여개 업체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

및 운전자들에게 철저한 관련법 숙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철저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구현하면서 7년 동안 거래처와의 신뢰구축에 성공한 서광환경은 매년 매출 상승이 이뤄지는 중이다.

거래처 1천300여곳... 신뢰 구축·매출 상승 '환경지킴이' 역 만전  
재활용분야 연구개발·외형 확대 추진... '환경보전' 사명감으로 수행

호)이 '환경부 장관상' 을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서광환경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모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성상 운송도중 폐기물의 비산,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완벽한 덮개 설치 등을 통해 수집운반

관련된 건설폐기물 등으로 나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서광환경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연간 약 7,000톤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며 폐기물 지

지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대전현대자동차 협동회, 수원 현대자동차 부분정비 협동회, 충남권역 쌍용 오토류 부분 정비 협동회, 현대도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쓰리세븐, 수원기술인협회의, 당진여객, 성원산업,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논산국도유지건설, 대전동구협의회 등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전문차량 16대를 확보·운영중이며, 직원

서광환경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호 서광환경산업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과 함께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부합해 환경보전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법규준수를 최우선으로 임직원 모두가 환경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부문 특별상

'식생수로관' 녹색환경 조성... 생태계 보존 매진



경성콘크리트공업(주)

(주)경성콘크리트공업 한영민 이사가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 이사는 지난 1996년 품질관리실장으로 입사해 건설산업에 뛰어들어 이후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기업인이다. 특히 제품개발팀장을 거치며 제품 품질인증 및 개선작업, 표준제정, 친환경수로관 개발업무를 주관한 결과 식물들이 식생수로관 내에서 자생하는 서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생태계의 보존은 물론 흙탕물 저감과 수질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하는 일체형을 도입함으로써 파손 및 밀립방지의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가격경쟁성을 지녀 업계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제품의 변면 및 바닥 면의 두께가 얇아 외압에 쉽게 파손되고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벤치플룸에 비해 무개수로관은 두께를 한층 두텁게 시공해 외압에 파손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리고 수로관에 갇혀 탈출할 수 없어 고사했던 동물들의 탈출로를 제공, 기초 생태계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영민 이사

개발해 절찬리에 시공하고 있다. 한 이사는 "한 기업의 번영과 명성은 어느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

건설업종 보증지원 총력 건설산업 진흥 일익



SGI서울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공화문지점장 고일석)이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건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을 적극 펼쳐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 일익을 담당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사의 부실화가 확산되고 건설관련 보증기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 지점장은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보다도 일반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공제조합보다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종 보증지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SGI서울보증 서초지점은 지난 한 해 동안 건설사에 대해 총 5,397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이 중 3,379억 원을 중소 건설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일반 전문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과거 품질산업과 우위건설에 보증



고일석 공화문지점장

고 지점장은 "현재 예정돼 있는 SOC사업조차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SOC사업이 지

건널목수로관 정부조달우수제품 인증... 기존 수로관 문제 해소  
무개수로관 '벤치플룸' 문제 해소... 생태계 보호 '일익'

받고 있다. 또 기존의 수로관 제품은 단순 배수로의 기능으로 인강중심적인 제품이었으나 식생수로관은 녹색환경과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친환경 중심의 제품으로써 일반제품과 차별적 가치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건널목수로관도 기존 제품의 경우 외적 요인의 의해 파손 또는 밀립현상으로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를 유발했던 문제점을 한번에 시공

아울러 한 이사는 멈추지 않는 열정과 하면 된다는 의지로 우수제품 인증서, 건널목 성능인증서, 무개 성능인증서, 식생 성능인증서, KS 인증, GR 인증, 환경마크인증, ISO인증, 벤치기업인증, INNO-BIZ 확인서, 우수제품인증, GQ제품마크인증서 등 총 12개에 달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경지정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부분 구조물을 대체하기 위해 유망공, 2차면변면, 분수관등을

라 기업 스스로 끊임없는 개선 노력과 고객여러분의 신뢰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 형성되는 것"이라며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출자금보다 업체 이행능력 중시... 보다 많은 혜택 지원  
"믿고 맡기는 신용파트너로서 고차원 서비스 제공 만전"

무엇보다 고 지점장은 "출자금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업체의 이행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지원을 할 것"이라며 중이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지점장은 "Vision 2020을 바탕으로 서민과 기업의 경제활성화와 신용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SGI서울보증의 다짐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용파트너로서 고차원적인

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3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지점장은 건설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의 선두주자이자 뿌리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건설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고 지점장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체되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건설산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사업 예산 집행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경영내실화와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중소 건설업체에 한해 아낌없는 보증지원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